

# 『황명통기』 수록 곡필의 변무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quest to Revise Errors of Errors in the *Hwangmyungdonggi*

김 대 경 (Kim, Dae-Gyeong)\*\*

##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5. 곡필 변무의 의의 |
| 2. 『황명통기』 판본 고찰     | 6. 맺음말       |
| 3. 곡필에 대한 변무의 사례    | <참고문헌>       |
| 4. 『황명통기』 수록 곡필의 수정 |              |

## <초 록>

『황명통기』는 경세론에 중점을 둔 명사(明史)로서 여러 차례 중간(重刊)되었으며, 후학에 의해 다양한 증보가 이루어질 만큼 널리 읽힌 사서(史書)이다. 그러나 『황명통기』의 증보본에는 조선의 역사에 대한 잘못된 서술이 존재하였으며 특히 인조반정에 대한 곡필은 왕조의 정통성에 흠집을 낼 만큼 중대한 문제였다. 조선에서는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누차 중국에 변무의 뜻을 전하였으며, 마침내 영조 때 이르러 비로소 그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이에 본 논문은 『황명통기』의 증보본에 실린 곡필을 변무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하여 원문서지학적·사학사적 방법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에서 필사적으로 곡필에 대하여 변무하고자 한 것은 단순히 사서의 오류 수정이 아닌 성리학적 역사의식의 발로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要語: 조선후기, 황명통기, 인조반정, 곡필, 변무

## <ABSTRACT>

*Hwangmyungdonggi* chronicles the history of the Ming Dynasty focusing on “Gyungseron” and was re-published several times. It is a historical text with a wide readership, such that posterity added new content and revised the text in varying degrees. But there existed errors on Joseon’s history in the revised book. In particular, its errors on King Injo’s Restoration was a serious problem, sufficient to blemish the legitimacy of the dynasty. Joseon took this matter seriously and asked China to revise the errors several times, and China eventually revised them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Hence, this paper seeks to study the process of revision and the outcomes of this process using textual bibliography and history of historiography. Through these, this study seeks to clarify that Joseon’s desperate effort for correction was not simply a revision of errors in the historical record, but the manifestation of a neo-confucianist historical awareness.

Key words: Late Joseon Dynasty, *Hwangmyungdonggi*, King Injo’s Restoration, errors, request to revise errors

\* 이 논문은 2019년 11월 8일 한국서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조선후기 明·淸 史書의 曲筆에 관한 서지학적 연구”의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헌연구원 연구원(espi0512@nahf.or.kr)

투고일: 2020년 8월 20일 최초심사일: 2020년 9월 3일 게재확정일: 2020년 9월 18일  
서지학연구, 제83집, 201-219, 2020. <https://doi.org/10.17258/jib.2020..83.201>

## 1. 머리말

조선은 성리학적 경제사용사상과 감계주의사관에 의해 역사서의 중요성이 높은 시기였다. 때문에 조선은 스스로 역사서를 편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중국으로부터 사서(史書)를 수용하고자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서적 수입 과정에서 명·청시기에 중국에서 널리 읽힌 사서인 『황명통기』 역시 조선에 수입되었다. 그러나 『황명통기』는 여러 차례의 증보로 인해 다양한 계열서가 존재하였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조선의 역사에 대한 곡필을 담고 있었다. 조선 측에서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였다. 중국 사서에 실린 인조반정에 대한 곡필은 인조의 후손으로서 뒤를 이은 왕조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변무하여야 했다. 이에 현종 때부터 변무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하였으며, 영조 말에 이르러서야 조선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황명통기』의 계열서에 수록된 곡필과 그에 대한 변무(辨誣)의 연구는 역사학·국문학·서지학계에서 진행되어 왔다. 역사학 분야에서는 주로 변무 과정에 대한 연구와 함께 역사적 의의를 찾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sup>1)</sup> 국문학·서지학계에서는 주로 『명기집략』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조선 후기의 서적 유통에서 책략이 담당했던 역할에 주목하였다.<sup>2)</sup>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황명통기』의 계열서에 수록된 곡필과 그에 대한 변무를 다룬 선행연구는 대체적으로 관련 사건의 흐름을 연구하며 정치·경제적 배경을 언급하거나 일면을 바라보는 데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곡필의 자세한 내용과 그것이 실린 서적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 또한 다양한 서적의 계열과 그 편찬사항에 대하여 곳곳에 오류가 산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선 후기에 일어난 『황명통기』 수록 곡필에 대한 변무의 사례에서 언급된 서적을 다시금 정리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문제가 된 곡필의 수정양상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곡필과 변무의 결과가 당시의 지식문화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 2. 『황명통기』 판본 고찰

### 2.1 『황명통기』의 편찬과 간행

『황명통기』는 명대(明代)에 진건(陳建)이 저술한 명사(明史)로서 『황명계운록』과 『황명역조사

- 
- 1) 안소라, “英祖代 史冊辨誣에 관한 研究: 『明史』의 朝鮮記事를 中心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8).  
이성규, “명청사서의 조선 곡필과 조선의 변무,” 『오송이공법교수정년기념동양사논총』 (1993), 503-568.  
장민영, “조선 영조대 『명기집략』 사건의 정치적 성격,”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2011).  
정길수, “李義天論.” 『규장각』 27(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4), 95-116.  
한명기, “17·8세기 韓中關係와 仁祖反正,” 『한국사학보』 13(2002), 9-41.
  - 2) 강명관, “조선 후기 서적의 수입·유통과 장서가의 출현,” 『민족문화사연구』 9(1996), 171-194.  
이민희, “조선과 중국의 서적중개상과 서적 유통문화 연구,” 『동박학지』 141(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8), 323-363.

치통기』의 두 편찬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진건은 명 태조 주원장의 사적을 기록한 오박(吳樸)의 『비룡기략』을 접하고 사적의 결합에 개탄하며 그 일부를 수정한 사서를 쓰고자 하였다.<sup>3)</sup> 이에 지정 11년(1351)부터 홍무 31년(1398)까지의 사실을 정리하여 8권 분량으로 『황명계운록』을 저술하였다. 이후 진건은 황좌(黃佐)로부터 홍무 이후의 역사를 정리할 것을 제안받아<sup>4)</sup> 건문으로부터 정덕에 이르는 143년(1399~1521)의 사적을 모아 총 34권 분량의 『황명역조자치통기』를 저술하였고, 이 두 사서를 가정 34년(1555)에 합쳐 42권 12책으로 완성하게 되었다.<sup>5)6)</sup>

진건은 『황명통기』의 편찬을 통해 국초(國初)의 강성함을 찾고자 하였다. 그의 저서 『치안요의』에 드러나듯 진건은 정치·경제·군사 등의 병폐를 경세론(經世論)에 입각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가 활동한 홍치~가정 연간은 명(明) 왕조가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다.<sup>7)</sup> 때문에 진건은 『황명통기』에서도 혼란했던 당시의 문제를 지적하고<sup>8)</sup> 명초의 강성했던 역사를 거울삼아 해결의 단초를 찾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황명통기』의 간행에 대하여 『만력무공록』의 저자 구구사(瞿九思)는 “나라에 귀가 먹고 눈이 멀었던 것이 비로소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렸다”<sup>9)</sup>는 찬사를 남겼다. 또한 『황명통기』는 조선에 전래되어 을해자로 간행<sup>10)</sup>되는 한편 류성룡·조익·성혼 등으로부터 학자로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융경 5년(1571), 『황명통기』는 사찬사서로서 오류를 전할 위험성이 있다는 공과급시중 이귀화의 비판이 받아들여져 금서로 지정되기에 이른다.<sup>11)</sup> 이에 따라 초간본의 유통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세 학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게 되어 여러 차례 중간(重刊)되었다.

3) 莊興亮, “明代史家陳建的學述生平及其『皇明通紀』研究述評,” 『史學史研究』 2013 No.4(2013), 29.  
 4) 『皇明通紀序』.  
 “泰泉黃先生見之, 諗建曰. “…我朝自太祖開基, 聖子神孫, 重光繼照, 垂二百祀矣, 而未有紀者. 子纂述是志, 盍並圖之, 以成昭代不刊之典也.””  
 5) 『皇明通紀序』.  
 “『啓運錄』舊已粹完, 難以再編改刻, 然二之又不是, 故今並冠以『通紀』之名, 而版刻姑仍舊, 合前後共爲一書云.”  
 6) 錢茂偉는 42권 합본의 정식 명칭을 『皇明歷朝資治通紀』, 약칭은 『皇明通紀』라 하였으며, 더욱 간략히 줄여 『通紀』라 칭할 것을 제안하였다. 錢茂偉, “陳建『通紀』書名與版本考,” 『古籍整理研究學刊』 2008 No.3(2008), 44-49.  
 7) 向燕南, “陳建『皇明資治通紀』的與編纂特點及影響,” 『史學史研究』 1993 No.1(1993), 48.  
 8) 『皇明通紀序』.  
 “祖宗時士馬精強, 邊烽少警, 而後來則胡騎往往沈入無忌也. 祖宗時風俗淳美, 直才輩出, 而邇來則漸澆漓也. 祖宗時財用有餘, 而邇來則度支恒憂匱乏也. 祖宗時法度昭明, 而邇來則變易廢弛比比也.”  
 9) 『東莞縣志』 卷58 『陳建傳』.  
 “國家龔瞽, 至是始有目有耳.”  
 10) 을해자본은 『신간황명역조자치통기(新刊皇明歷朝資治通紀)』의 서명으로 간행되었으며, 국내에는 건국대학교(고 952.05 신11)·고려대학교(만송 貴 224)·국립중앙도서관(古221-193)의 3건 모두 영본(零本)으로 소장되어 있다. 초간본 『황명통기』와 동일한 수록내용으로 조선에 대한 곡필(曲筆)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11) 『明穆宗實錄』 권61, 隆慶 5년(1571) 9월 22일.  
 “工科給事中李貴和言: “我朝列聖實錄, 皆經儒臣奉旨纂修, 藏在秘府, 建以草莽之臣, 越職僭擬, 已犯自用自專之罪矣. 況時更二百年, 地隔萬餘里, 乃欲以一人聞見, 臧否時賢, 榮惑衆. 若不早加禁絕, 恐將來訛以傳訛, 爲國是之累非淺淺也.””

심덕부(沈德符)는 『만력야회편』에서 『황명통기』가 금서로 지정되었음에도 다시 간행되어 세상에 전파된 것이 이전보다 배로 늘었다고 언급하였다.<sup>12)</sup>

## 2.2 「황명통기」의 계열서

명말·청초의 역사가들은 독자적인 사서 저술보다 속찬·증보 등의 작업에 공력을 투자하였다.<sup>13)</sup> 이에 따라 「황명통기」는 다양한 증보본이 편찬되었다<sup>14)</sup>. 현재까지 확인된 「황명통기」의 계열서는 아래와 같다.<sup>15)</sup>

<표 1> 「황명통기」 계열서 일람

구분	서명	저자사항	간행시기	수록내용
초간	황명역조자치통기 (皇明歷朝資治通紀)	진건(陳建)	가정 34(1555)	지정 11(1351) ~ 정덕 16(1521)
중간	신간황명역조자치통기 (新刊皇明歷朝資治通紀)	진건(陳建)	만력 1(1573)	지정 11(1351) ~ 정덕 16(1521)
중간	중각교정증보황명통기전칙 (重刻校正增補皇明通紀典則)	진건(陳建) 능치룡(凌稚隆)	만력 10(1583)	지정 11(1351) ~ 정덕 16(1521)
중간	신계품출황명통기 (新鑿品隴皇明通紀)	진건(陳建)	만력 22(1594)	지정 11(1351) ~ 정덕 16(1521)
중간	신집교정표제황명통기 (新鈔校正標題皇明通紀)	진건(陳建)	만력 36(1608)	지정 11(1351) ~ 정덕 16(1521)
중간	중각교정증보황명통기 (重刻校正增補皇明通紀)	진건(陳建)	만력연간	지정 11(1351) ~ 정덕 16(1521)
증보	신계관관음석표제황명통기 (新鑿官板音釋標題皇明通紀)	진건(陳建) 복대유(卜大有) 복육진(卜六典)	만력 1(1573)	지정 11(1351) ~ 융경 6(1572)
증보	황명자치통기 (皇明資治通紀)	진건(陳建) 복세창(卜世昌)	만력 32(1604)	지정 11(1351) ~ 융경 6(1572)
증보	명통기술유 (明通紀述遺)	진건(陳建) 복세창(卜世昌) 도룡(屠隆)	만력 32(1604)	지정 11(1351) ~ 융경 6(1572)
증보	황명속기 (皇明續紀)	진건(陳建) 복대유(卜大有) 복세창(卜世昌)	만력연간	지정 11(1351) ~ 가정 26(1547)

12) 『萬曆野獲編』 권25 「焚通紀」.

“復有重刻行世者，其精工數倍於前。”

13) 孫衛國, “「皇明通紀」及其續補諸書對朝鮮之影響,” 『中國史研究』 2009 No.2(2009), 165.

14)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皇明通紀」의 重刊·增補本을 「황명통기」의 계열서로 지칭하고자 한다.

15) 錢茂偉, 「點校「皇明通紀」「陳建及其通紀」」(香港: 中華書局, 2006), 10-28.

孫衛國, “「皇明通紀」及其續補諸書對朝鮮之影響,” 『中國史研究』 2009 No.2(2009), 160-163.

莊興亮, “明代史家陳建的學述生平及其「皇明通紀」研究述評,” 『史學史研究』 2013 No.4(2013), 33-35.

이상의 연구성과를 참고하였음.

「황명통기」 수록 곡필의 변무에 대한 연구

구분	서명	저자사항	간행시기	수록내용
증보	통기통종 (通紀統宗)	진건(陳建) 원황(袁黃)	만력연간	지정 11(1351) ~ 용경 6(1572)
증보	신계이탁오선생증보비점황명정속 합명통기통종 (新鍬李卓吾先生增補批點皇明正續 合並通紀統宗)	진건(陳建) 원황(袁黃) 복대유(卜大有) 이지(李贄)	만력연간	지정 12(1352) ~ 만력 44(1616)
증보	황명전요 (皇明典要)	진건(陳建) 이춘배(李春培) 왕정종(王鼎宗)	만력연간	홍무 1(1368) ~ 만력 48(1620)
증보	황명통기종신록 (皇明通紀從信錄)	진건(陳建) 심국원(沈國元)	천계 7(1627)	지정 12(1352) ~ 만력 48(1620)
증보	양조종신록 (兩朝從信錄)	심국원(沈國元)	승정 1(1628)	태창 1(1620) ~ 천계 7(1627)
증보	황명십육조광휘기 (皇明十六朝廣彙紀)	진건(陳建) 왕양참(王襄參) 진룡가(陳龍家) 구유(丘酉)	승정 5(1632)	홍무 1(1368) ~ 천계 7(1627)
증보	황명통기법전전록 (皇明通紀法傳全錄)	진건(陳建) 고여식(高汝拭) 오정(吳楨)	승정 9(1636)	지정 12(1352) ~ 정덕 16(1521)
증보	황명통기전편후편 (皇明通紀前編後編)	진건(陳建) 동기창(董其昌)	승정 11(1638)	지정 12(1352) ~ 천계 7(1627)
증보	황명통기집요 (皇明通紀輯要)	진건(陳建) 손광(孫鑠) 마진윤(馬晉允)	승정 12(1639)	지정 11(1351) ~ 천계 7(1627)
증보	황명자치통기 (皇明資治通紀)	진건(陳建) 악원성(岳元聲) 심국원(沈國元)	승정연간	지정 11(1351) ~ 용경 6(1572)
증보	황명통기집록 (皇明通紀輯錄)	진건(陳建) 진룡가(陳龍家)	승정연간	지정 11(1351) ~ 천계 7(1627)
증보	황명통기집요 (皇明通紀集要)	진건(陳建) 강욱기(江旭奇)	승정연간	지정 12(1352) ~ 천계 7(1627)
증보	황명이조십사중증보표제평단실기 (皇明二朝十四宗增補標題評斷實紀)	진건(陳建) 구준감(丘濬鑑) 진룡가(陳龍家) 심국원(沈國元)	승정연간	지정 12(1352) ~ 천계 7(1627)
증보 (조선)	황명통기집요 (皇明通紀輯要)	진건(陳建) 손광(孫鑠) 마진윤(馬晉允)	숙종 25(1699)	지정 11(1351) ~ 천계 7(1627)
증보 (조선)	황명통기집요 (皇明通紀輯要)	영조어제(英祖御製) 진건(陳建) 손광(孫鑠) 마진윤(馬晉允)	영조 47(1771)	지정 11(1351) ~ 천계 7(1627)

한편 조선에 수용된 계열서 중 일부에는 조선에 대한 곡필이 발견되었다. 특히 인조반정에 대한 곡필은 조선후기 왕조의 정통성에 흠집을 입힐 만큼 민감한 문제였다. 사서의 위상이 매우 높았던 조선에서는 그에 대한 변무를 위하여 깊은 의논을 거쳐 여러 차례 중국에 진주사를 파견하였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황명통기」로 인해 일어난 변무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곡필에 대한 변무의 사례

#### 3.1 인조 10년(1632)의 곡필 발견

「황명통기」에서 최초로 확인되는 곡필은 인조반정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곡필에 대한 문제제기는 인조 10년(1632) 8월 22일 고부천이 바친 「황명양조통기종신록(皇明兩朝通紀從信錄)」으로부터 비롯되었다.<sup>16)</sup> 「인조실록」 및 「승정원일기」 등의 연대기자료에는 해당 서적에 어떠한 내용이 실려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승정원에서 고부천이 서적을 봉진한 다음날 여항의 잡서에 불과하니 예람하기에 적당치 않으나 대간의 상소이기에 함께 입계한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따름이다.<sup>17)</sup>

다만 조극선의 문집 「야곡집(冶谷集)」에 남아 있는 글을 통해 대강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다. 그는 고부천이 바친 「황명양조통기종신록」<sup>18)</sup>에 인조반정에 대한 곡필이 있으며, 그럼에도 봉진한 것에 대하여 승정원이 잘못을 지적하였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인조가 다시 서적을 돌려주는 한편 그 이후로 인조는 물론 조정에서도 다른 반응이 없는 것은 그들 스스로 반정에 대하여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남겼다.<sup>19)</sup>

인조 대에 곡필이 발견되었음에도 바로잡고자 하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시기적으로 조선

16) 「承政院日記」, 10년(1632) 8월 22일.

“掌令高傳川上疏大概, 皇明兩朝通紀從信錄, 具由封進事. 入啓.”

17) 「承政院日記」, 10년(1632) 8월 24일.

“昨日政院啓辭, 高傳川所進從信錄, 此不過閭巷間浪雜之書, 不足煩於睿覽… 而臺諫上疏, 故竝與其冊而入啓矣.”

18) 「황명양조통기종신록」은 명말청초의 학자 심국원(沈國元)의 증보본이다. 그는 「황명통기」의 증보본이 융경(隆慶)까지만 이르는 것을 ‘신종의 정사는 이목에 창창함에도 책으로 엮이지 않았으니 사민(士民)의 간절함을 위로하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황명통기종신록」을 저술하였다. 「황명통기종신록」은 주원장의 기병에서 정덕에 이르기까지의 초간본에 해당하는 내용에 증보하는 한편 가정에서 천계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 이를 이어 태창·천계의 내용을 묶어낸 것이 「양조통기종신록」으로, 고부천이 바친 서적은 이를 가리킨 것으로 예상된다.

19) 趙克善, 「冶谷集」 권8 三官記 耳官上.

“高用厚奉使赴京師, 既還有罪. 繫獄. 方此受刑, 使其兒子掌令傳川, 投進赴京時買來「皇明兩朝通紀從信錄」數卷. 其所載我國癸亥反正事. 極其誣罔. 有不忍見聞者. 政院以爲此書. 出於中朝閭巷間所紀. 用厚乃敢上達. 王獄不嚴. 囚人敢通私書. … 後數日. 自上命還給從信錄. 邇來數月. 大臣三司寥寥若不聞不知者然. 殊可異焉. 噫. 今之士大夫自家遭纖芥之辱. 必怒形於色. 爲之爭辨曲直而乃已. 獨於君父遭莫大誣罔之辱. 恬然不以芥意. 是其心亦以癸亥之事. 爲有涉於不正歟.”

안팎이 안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변무(辨誣)의 수행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sup>20)</sup> 이러한 요인은 명·청의 교체가 확인해진 이후 줄어들게 되었으며, 따라서 점차 변무의 움직임이 일게 된다.

### 3.2 현종 14년(1673)의 변무

현종 14년(1673) 2월 11일, 복창군 이정·복선군 이남·복평군 이연은 「황명통기」·「십육조광기」<sup>21)</sup>·「양조종신록」 등의 서적에서 인조반정에 대한 사실이 다르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sup>22)</sup> 이와 함께 지난 사행에서 보았던 「진신편람」으로부터 「명사」를 찬수할 관원을 두었다는 소식을 확인하였으므로, 변무의 기회이기에 사신을 보낼 것을 청하였다.<sup>23)</sup>

한편 3월 3일, 김수항은 「황명통기집요(皇明通紀集要)」에서 ‘전왕이 스스로 하늘의 명을 끊으매 소경왕의 손자가 총명하고 인호하여 사군이 되기 마땅하기에 이렇게 청을 하였다.’라는 내용을 접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인조반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문장이기에 현종은 이를 조선에서 보낸 주문에서 채록한 것으로 여기며 이와 같은 서책을 모아 참고할 것으로 하도록 명하였다.<sup>24)</sup>

사관은 이에 사평을 덧붙이기를 「종신록」 등 서적은 전후의 소문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며, 내용 역시 전해 들은 것에 지나지 않기에 굳이 변론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현종 역시 그러한 일을 알고 있었기에 굳이 변무를 일으킬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sup>25)</sup> 현종의 몰년인 갑인년까지 이러한 논의가 없었다는 사평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복창군 이정 등이 청한 변무사 파견은 현종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3.3 숙종 2년(1676)의 변무

숙종 대에 다시금 같은 문제로 변무의 움직임이 일게 되었다. 숙종 2년 1월 28일, 정치화와 허목은

20) 안소라(2018), 18.

21) 「십육조광기」는 진룡가(陳龍家)가 중심이 되어 엮은 「황명십육조광회기」의 이명(異名)이다.

22) 「顯宗改修實錄」 권26, 14년(1673) 2월 11일.

“福昌君 楨、福善君 栴、福平君 樞等上疏曰：“臣等得見「皇明通紀」、「十六朝廣紀」、「兩朝從信錄」等書，於仁祖大王癸亥反正事，傳記爽實，受誣罔極。”

23) 「顯宗改修實錄」 권26, 14년(1673) 2월 11일.

“頃年臣等之奉使也，得見清國「摺紳便覽」，則設「明史」纂修之官，辨誣之舉，此正其會。…願以臣等之章，上詢廟堂而行之。”

24) 「顯宗改修實錄」 권26, 14년(1673) 3월 3일.

“壽恒曰：“得見「皇明通紀集要」，其所紀者，頗與前日所見諸書有異。其中有‘前王自絕于天，昭敬王之孫，聰明仁孝，宜爲嗣君，故有此請。’之語矣。”上曰：“此必我國奏文中語也。如此等書冊，玉堂其廣問搜聚，以爲參考之地。”

25) 「顯宗改修實錄」 권26, 14년(1673) 3월 3일.

“「從信錄」等諸書，不過隨前後所聞而備錄之，記事之體，自不得不如此。其意亦曰：“邊臣之傳聞如此，而差官之查報如此。”云爾，非有以先入爲主之意也。到今茲事，非但不必辨，亦無可辨者。上意蓋知其如此，故訖甲寅置之，而不復議。”

인조반정에 대한 사서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기에 해결을 위해 변무의 필요성이 있다는 차자를 올렸다.<sup>26)</sup> 조정에서는 곧바로 그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민청에서 소견을 진술한 대다수의 관료는 변무를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 민시중과 이홍연은 그 전후 사실을 명백히 안 연후에 대응하도록 유보함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장선징은 야사의 오류에 변무사를 보내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였으나, 숙종은 결국 변무의 뜻을 밝히고 복선군 이남을 변무사로 차임하였다.

그러나 청 조정의 답변은 조선에서 원하던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당시 청은 이미 「명사」를 정사로서 편찬하고 있었으며, 인조반정에 대한 사실 역시 야사를 채록하지 않고 이미 정해진 논의를 좇아 편찬할 것을 알렸다. 오히려 사행 도중에 사서의 구매 금지를 어긴 것이 문제가 되어 결국 청으로부터 시비를 따지는 관원이 파견되는 데에 이르게 되었다.<sup>2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다시금 사신을 보내어 변무를 요청하였으나, 예부의 반응은 과거에 조선국왕에게 분명히 밝혔음에도 다시 주문을 올린 것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을 뿐이다.<sup>28)</sup>

이와 같이 조선에서 생각했던 방향과 다른 방식으로 흘러감에 따라 국내에서도 적지 않은 반대 여론이 생겨났다. 「현종개수실록」 14년 3월 3일 현종과 김수항의 대화에 덧붙여진 사평은 “금상초에 이르러 이정과 이남 등이 다시 전의 이야기를 거듭 꺼내 자청해서 변무사가 되었다가 끝내 일을 망치고 재물만 허비하고는 그만두었다”<sup>29)</sup>라는 부정적 시각을 보이기도 하였다.<sup>30)</sup>

### 3.4 영조 초기의 「명사」 반사(頒賜)

현종·숙종 시기와는 달리 영조 대의 변무는 비교적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sup>31)</sup> 영조는 즉위 초년에 청에서 동지부사로서 연행을 다녀온 이하원을 통해 「명사」가 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민진원이 「명사」의 수찬이 끝나기 전에 열람을 청한다면 질책을 당할 우려가 있으며,

26) 「肅宗實錄」 권5, 2년(1676) 1월 28일.

“領府事鄭致和上劄曰：仁廟反正時事，「明史」所記爽實，宜即陳奏辨誣，… 右議政許穆上劄曰：仁廟中興功烈，大聖人終始盛德事，「明史」所記，既失實無據，至有不忍聞者。辨誣事何可一日遲也。”

27) 「清聖祖實錄」 권64, 15년(1676) 11월 1일.

“查本朝纂修明史，是非本乎至公。該國癸亥年廢立始末及莊穆王李侗實迹，自有定論，并无旁采野史諸書，以入正史，應无庸議。至外國使臣來京，禁買史書。今違禁購買，應遣官往朝鮮會同該王，嚴可詳審議處。伊所進禮物，交來史帶回。”

28) 「同文彙考」原編 권33 陳奏1 「禮部不准奏請發回方物咨」.

“查朝鮮國癸亥年莊穆王事蹟始末，史臣惟據實纂修… 已經咨行朝鮮國王，甚明今該國王姓某，又行瀆奏，殊屬不合，應將所請，無庸再議。”

29) 「顯宗改修實錄」 권26, 14년(1673) 3월 3일.

“至今上初，楨、梲等復申前說，自請爲辨誣使，終至於債事糜財而後已。”

30) 다만 해당 기사는 「현종실록」에는 나타나지 않고 「현종개수실록」에만 수록되어 있다. 이는 남인 계열의 외척 세력을 배경으로 가진 북장군 등에 대하여 경신환국 이후에 집권한 서인 세력이 「현종개수실록」을 찬수하며 부정적 시각의 기술을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31) 이하의 내용은 안소라(2018)를 참고하였음.

수찬하는 자들이 「대명회전」을 전거로 이용할 것이므로 지나치게 염려할 것은 없으니 완성을 기다렸다가 필요에 따라 변무하자는 의견을 내었고, 영조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sup>32)</sup>

그러나 ‘조문명의 문건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변무를 향한 영조의 자세가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조문명은 우연히 얻어 보았던 「명사집략(明史輯略)」·「속봉주강감(續鳳洲綱鑑)」<sup>33)</sup>에 인조반정에 대하여 잘못 기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sup>34)</sup> 이에 「명사」의 수찬에 오류가 실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영조는 변무를 시작하였다. 2월 초에 사행 날짜를 가리도록 명한 뒤, 청으로 향하는 사신들에게 「명사」가 완성되었다면 사본을 들여오도록 하였다. 만일 편찬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면 반드시 조선이 원하는 내용으로 기록되도록 요청할 것을 명하였다.<sup>35)</sup>

그러나 처음 조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변무는 쉽게 해결되지 아니하였다. 「명사」 편찬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장정옥(張廷玉)은 역사기록을 쉽게 고칠 수 없다는 것으로 조선의 변무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조심스럽고 끈질긴 변무 끝에 청에서는 조선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선열전」을 반사할 것을 결정하였다.<sup>36)</sup> 그러나 결국 인본의 반사는 불가하다는 의논 끝에 등본(謄本)을 반사하게 되었고, 영조는 재위 8년(1732)에 변무가 이뤄진 「조선열전」의 등본을 받게 되었다.

이후에도 영조는 끊임없이 인본의 반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명사」의 간행은 조선이 원하는 것과는 달리 옹정제가 사망하고 「청실록」의 편찬 등이 이유가 되어 기약 없이 지연되었다. 그럼에도 조선은 지속적으로 「조선열전」 인본을 비롯한 「명사」 전질의 반사를 요청하였다. 결국 14년(1738)에 「조선열전」의 인본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듬해에 「명사」 전질의 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sup>37)</sup>

32) 「英祖實錄」 권6, 1년(1725) 5월 11일.

“左議政閔鎮遠奏曰：… “今聞「明史」撰修，則如前被誣，不無其慮，而史事未訖之前，遽爲請見，不無遭噴言之慮。且「會典」中，既已釐正，則今此修史者，似必援據「會典」。設或不然，神宗朝，我國累煩呼籲之事，必爲載錄於新史。此款既載，則宗系辨誣，自在其中，似不必過慮。待其成書，果有被誣之事，則更請辨誣可也。” 上曰：“事係莫重，故使之稟處，而既載於「會典」，今雖修史，豈有他慮。徑先請見，似爲不可。此後使行時，詳探其成史與否宜矣。”

33) 「명사집략」과 「속봉주강감」은 주린(朱璘)이 편찬한 「명기집략」의 이명(異名)이다. 그 간행은 왕세정(王世貞)의 「강감회찬(綱鑑會纂)」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왕세정의 호(號)가 봉주(鳳州)이기에 「강감회찬」은 「봉주강감(鳳洲綱鑑)」으로도 불렸다. 주린(朱璘)은 「강감회찬」을 수정하여 「강감집략(綱鑑輯略)」을 편찬하였으며, 「통감명기전재집략(通鑑明紀全載輯略)」으로 불리는 명사(明史)를 덧붙여 책을 완성하였다. 명사 부분을 별본(別本)으로 간행하기도 하였으며, 그 명칭은 「명기집략」, 「명사집략」, 「명기전재」 등 다양하다.

34) 「鶴巖集」 「燕行日記」 8월 3일.

“臣偶閱新刊「明史輯略」·「續鳳洲綱鑑」者，其載我國事，多不實。… 而其中誣我仁祖大王一段，尤極萬萬虛罔，節節巧慘，臣不敢移諸筆舌。”

35) 「承政院日記」 2년(1726) 2월 9일.

“謝恩兼陳奏三使臣引見入侍時。… 上曰，“「明史」既成，則可以謄來，而如或未及，則必聞其丁寧改給之言而出來，可也。”

36) 「清世宗實錄」 권44 4년(1726) 5월 28일.

“禮部等衙門遵旨議覆，“朝鮮國王李昖之四代祖李侗，在明天啓三年請封，當據該國宗族臣民，稱宗恭順，因籲請統理國事。今該國王奏稱，“有「明十六朝記」，直以篡奪書之，實屬冤誣，請刪除雜說。” 著爲定論，應如所請，俟「明史」告成後，將列傳內立李侗之事，頒發該國。” 從之。”

37) 조선에서는 몰래 미리 입수한 「明史」 본紀의 내용 역시 변무하고자 하였으나 頒賜 이전에 확인한 내용을 변무를 요청할 근거가 없어 이루지 못하였다. 본기와 열전 사이의 仁祖反正에 대한 서술 차이 역시 이것에서 기인하였을

### 3.5 영조 47년(1771)의 「명기집략」 사건

「명사」의 반사 이후 곡필과 변무의 소동은 일단락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영조 47년(1771)에 박필순의 「강감회찬(綱鑑會纂)」에 덧붙여 주린(朱璘)이 지은 명사에서 태조의 선계에 대한 문제를 발견했다<sup>38)</sup>는 문제제기로 인해 다시금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오늘날 「명기집략」 사건으로 불리는 영조 47년의 소요는 결과에 있어 이전까지와의 변무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린의 「명기집략」 뿐만 아니라 그 저본이 되었다고 일컬어지는 「황명통기」를 비롯하여 「청암집(靑菴集)」<sup>39)</sup>과 「봉주강감(鳳洲綱鑑)」 등 수많은 서명이 언급되었으며, 이로 인해 조선 후기 주된 서적의 유통경로였던 역관과 책패는 크게 처벌받고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서적은 모두 수거되어 불태워지게 되었다. 뒤이어 해당 서적과 관련된 여러 인물에 아우르는 옥사가 일어났으며 「명기집략」의 저자 주린의 사평이 수록되었다는 이유로 「명사강목(明史綱目)」이 수정되기도 하였다.

서적과 관련된 처벌이 진행되는 한편 조선은 곡필에 대한 변무를 위하여 청에 진주사를 파견하였다. 청에서는 문제를 제기했던 「황명통기」와 「명기집략」 등의 서적은 이미 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책이기 때문에 구태여 청측에서 수정할 것이 없으며, 이미 「명사」에서 정확한 사실을 밝혀 두었다는 의견을 전하였다. 또한 조선에서 「황명통기」와 「명기집략」에 대한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40)</sup>

이와 같이 명사가 수록된 서적 대부분이 불타 없어지자 조선에서는 신사(信史)가 모두 없어지는 것을 우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명사(明史)를 다룬 새로운 서적을 간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위하여 창덕궁의 보문각에 소장하고 있던 진강용 「황명통기」를 토대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였으며, 영조 자신이 직접 서문을 지어 책머리에 달도록 하였다. 또한 조선의 입장에서 피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침을 결정하였다.<sup>41)</sup> 그 결과, 영조는 수정을 명령한 지 40일 만에 새롭게

것으로 추측된다.

38) 『英祖實錄』 권116 47년(1771) 5월 20일.

“臣於昨日，偶伏見自燕來「綱鑑會纂」，繫以「明史」者，卽康熙丙子年間朱麟所撰。而所載我朝事，有瑣系罔極之誣…”

39) 주린의 호인 청암(靑巖)을 딴 것으로 보이며, 청암(靑菴)은 오기(誤記).

40) 『清高宗實錄』 권891, 36년(1771) 8월 18일.

“查朱璘輯略、於乾隆二十二年浙江巡撫楊廷璋奏請銷毀。其陳建通紀、現遍訪京城書肆、並無售者、是二書在中國久已不行、無事改削。…「明史·朝鮮列傳」、載其始祖世系、及國人廢琿立琮之處、考據已極詳明。乾隆三年、我皇上允該國王所請、印刷頒給、該國自當欽導刊布、使其子孫臣庶知所信從。若陳建通紀、朱璘輯略二書、應令該國王於其國中自行查禁焚銷、永杜疑竇。”

41) 『英祖實錄』 권116 47년(1771) 6월 22일.

“上曰：「皇明諸史，一竝洗草，恐涉如何？予欲拔去誣語，更印一本。」領議政金致仁等，皆以聖教爲至當，命知委五部，如有「通紀」留置者，使之來納。…夾侍以昌德宮 寶文閣有所儲仰奏，上喜遣中官取來，卽先朝與 當宁進講兩帙，而各爲二十冊，皆以朱紅懸吐者也。上命下番儒臣洪檢，第其卷次，又命大臣圈其誣語條，遂命開局更印，親製弁卷小序。後因大臣陳達，命「通紀」中我朝姓字大書之，諱則以小註書之，冊名則改之以「皇明通鑑。」”

간행된 서적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이 「명기집략」 사건'의 결과물로서 24권 24책의 분량으로 새롭게 간행된 영조어제본 「황명통기집요」이다.<sup>42)</sup>

현종 시기부터 지속된 인조반정에 대한 곡필과 변무의 소동은 「황명통기집요」가 간행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무의 과정에 대한 연구는 여러 차례 연구된 바가 있으나, 실제 곡필의 수록형태와 수정양상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 그렇기에 다음 장에서는 각 서적별로 수록된 곡필의 수정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4. 「황명통기」 수록 곡필의 수정

곡필과 변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변무과정에서 언급된 각 서적에 곡필이 수록된 형태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때문에 해당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존본을 열람하여야 한다. 곡필이 수록된 것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서적은 크게 「양조종신록(兩朝從臣錄)」·「황명십육조광휘기(皇明十六朝廣彙紀)」·「황명통기집요(皇明通紀集要)」와 「명기집략(明紀輯略)」<sup>43)</sup>의 4종이다.

언급된 계열서의 현존본<sup>44)</sup>을 확인한 결과 수록된 곡필은 각 서적별로 분량의 차이가 있으나 크게 인조반정의 진행양상과 원가립(袁可立)의 상소로 나뉜다. 인조반정의 진행양상에 대한 기사에는 ① 광해군의 품성에 대한 긍정적 표현 ② 인조의 종친시기 행적 ③ 화재진압을 명목으로 한 군사 대동 입궁 ④ 광해군을 불에 던져 시해함 ⑤ 인조가 왜의 사위라는 설의 다섯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① 광해군의 품성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기사에 광해군이 전왕의 차자(次子)로 성품이 어질고 유순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만약 광해군의 품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표현이 사서로 전해진다면 인조반정의 정당성이 퇴색되기에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 ②는 인조의 종친시기 행적에 관한 기록인데, 지적된 서적들에는 종친시기 인조에 대하여 ‘말을 달리고 칼을 시험하였으며 광해군 옆에서 고령(誥令)을 맡아 보았다’고 수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에 종친은 정치적 활동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역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③과 ④는 반정의 진행을 시간 순으로 서사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데, 인조반정이 일어날 때 대비와 밀약하고 궁궐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군사를 대동하고

42) 다만 영조가 새로 간행된 「皇明通紀」를 받은 것은 7월 30일이고, 청이 진주사에게 화답을 내린 것은 같은 해 8월 18일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조선은 청으로부터 답변을 받기 이전에 이미 새로운 明史의 필요성을 느끼고 史書의 新刊을 결정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43) 「명기집략」의 경우는 엄밀히 말해서 「황명통기」의 계열서로 분류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에 대한 변무가 영조대 「황명통기집요(皇明通紀集要)」의 간행의 영향을 주었기에 함께 확인하였다.

44) 「兩朝從臣錄」(하버드대학교 연칭도서관: T 2735 3161)  
 「皇明十六朝廣彙紀」(四庫禁燬書叢刊)  
 「皇明通紀集要」(하버드대학교 연칭도서관: T 2720 7914d)  
 「明紀輯略」(하버드대학교 연칭도서관: T 2720.2 2915.2)  
 이상의 현존본을 열람하였음.

입궁, 궁을 장악하고 광해군을 붙잡아 불에 던져 태워 죽였다는 기록이다. 영조는 「명사」를 반사받는 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반정이 일어날 때 윤패되었던 대비와 어떻게 밀약을 맺을 수 있는냐는 논리로 해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광해군은 인조반정이 종료된 후 제주에서 귀양살이를 하다 사망하였기에 오류를 지적하였다. 마지막 ⑤는 원가립(袁可立)의 상소와 이어지는 것으로, 인조가 왜의 사위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가 되었다. 당시 원가립은 등래순무(登萊巡撫)로서 조선의 동향을 꾸준히 살피고 있었다.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그는 반정의 잘못된 점을 열거하며 조선을 토벌할 것을 청하였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꼽은 것이 광해군은 임진왜란 시기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과 달리 인조가 일본의 사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역시 전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조선에서 변무하여야 할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해당 서적을 확인한 결과, 곡필이 수록된 것으로 언급되었던 서적은 모두 문제가 되는 내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서적별로 기사의 수록 상황은 아래와 같다.

<표 2> 각 서적별 곡필 수록여부

서적구분	인조반정 진행양상(①~⑤)	원가립 상소
「양조종신록」	○	○
「황명십육조광휘기」	○	○
「황명통기집요」	○	○
「명기집략」	○	○
「황명통기집요」(조선본)	X	X

현재 확인되는 「양조종신록」·「황명십육조광휘기」·「황명통기집요」와 「명기집략」에서는 모두 곡필의 기사가 수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조선에서 간행된 「황명통기집요」에는 해당 기사가 모두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조선본 「황명통기집요」의 저본이 되는 중국본 「황명통기집요」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조선에서 「황명통기집요」를 간행하며 그 내용을 확인하고 삭제한 것인지를 단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 5. 곡필 변무의 의의

영조는 일련의 변무과정을 선조 대 종계변무의 성공과 동일선상에 두고자 하였다. 그는 「명사」의 반사과정과 「명기집략」의 변무과정에서 줄곧 선조 대의 변무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명기집략」의 변무를 성공한 것을 기념하여 선조 대의 광국공신(光國功臣) 수훈을 본받아 「신묘중광록(辛卯重光錄)」과 「속광국지경록(續光國志慶錄)」을 편찬하였다. 이는 청에서 스스로 문제가 된 서적을 말소하겠다는 예부의 자문(咨文)과 함께 조선에 「황명통기」와 「명기집략」의 자유로운 처리를 허락한

것을 통해 선조 대의 변무에 비할 만한 수확이라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영조가 이렇듯 즉위 초기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지난했던 변무에 힘을 쓴 것은 조선에 있어 사서가 영유했던 가치가 큰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서는 성리학적 질서 하에서 경제사용의 논리와 감계주의사관에 입각한 인식으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였다. 진건의 「황명통기」는 전술하였듯이 경제에 관심을 두고 현실의 문제를 타파하기 위하여 편찬한 역사서이다. 때문에 조선에서는 일찍부터 「황명통기」를 수용하여 류성룡·조익·성혼·이익 등이 학자로서 읽어야 할 책으로 언급하는 등 널리 읽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명통기」의 계열서에 실린 곡필을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적자 출신이 아니었기에 왕조의 정통성에 예민할 수밖에 없던 영조에게 인조반정에 대한 곡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였다.

한편 18세기 중엽을 지나며 조선에서는 중화의 위상을 조선에 부여함으로써 전통적인 화이관에 입각한 동아시아 질서를 관념적으로나마 유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점차 강해졌다.<sup>45)</sup> 숙종 시기에 이루어진 대보단의 건립과 영조에 의한 확대는 그러한 의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황명통기집요」를 간행하는 과정 역시 명에 대한 계승의식이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조선은 대외적으로는 청의 연호를 따랐으나, 대내적으로 승정 연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영조는 「황명통기집요」의 서문을 직접 지으며 기년(紀年)을 승정으로 하였다. 왕명에 의해 간행된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멸망한 명의 연호를 붙인 것은 당시 만연했던 명에 대한 계승의식이 강하게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것은 명의 연호를 사용하는 데에 한층 거리낌이 없도록 했을 것이다.

영조 47년의 「황명통기집요」는 위와 같이 성공적인 변무의 결과물로 조선의 입장에서 사서(史書)를 간행한 것이다. 또한 이는 단순히 곡필에 대한 변무의 성공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중화 의식에 기반을 두고 역사서를 간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성리학적 질서 하에서 다시금 사상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6. 맺음말

본 논문은 조선에 수용된 「황명통기」의 계열서에 실린 곡필과 그에 대한 변무의 내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당시 사서(史書)의 위상을 밝히는 한편 그 동안 오류가 산재하고 있던 계열서에 대한 정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많은 서적을 수입함에 따라 진건의 「황명통기」는 경제론에 입각하여 서술된 특성상 조선에서도 널리 읽혔던 역사서였다. 「황명통기」는 편찬 이후 후세 학자들에 의해 여러 차례

45) 허태용, 「영(英), 정조대(正祖代) 중화계승의식(中華繼承意識)의 강화와 송(宋), 명(明) 역사서의 편찬」 『조선시대사학보』 42(2007. 9), 238.

중간(重刊)과 증보(增補)를 거쳐 다양한 계열서로 편찬되었다. 그 중 일부에 실린 광해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인조가 종친 시절 행적·인조반정의 과정에 대한 오류·인조의 왜서설(倭壻說) 등의 곡필은 당시 조선에게는 국가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정하여야 했던 중요한 의제였다.

이로 인해 현종 대부터 영조 말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변무가 논의되었으나 현종·숙종 시기는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조선은 영조 대에 이르러 「명사」의 반사를 통해 비로소 원하는 방향으로 변무를 이뤄낼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명기집략」 사건을 통해 조선에서 직접 사서(史書)를 수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원하는 바를 성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영조는 인조반정에 대한 변무를 선조 때의 종계변무와 동일한 선상에 두었다. 동시에 18세기 말, 조선에 만연했던 소중화 의식으로 대외적으로는 청의 신하로서 자세를 낮추었으나 대내적으로는 전통적인 화이관을 유지하는 움직임 보였다. 이에 영조는 「황명통기집요」를 간행하며 송정의 연호를 사용하는 데에 이른다.

조선 후기에 일어난 「황명통기」 수록 곡필에 대한 변무는 단순히 사서에 실린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없다. 조선에서 줄곧 곡필을 변무하고 마침내 스스로 간행하는 일련의 과정은 당시 지식세계에서 사서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며, 그 기저에는 성리학적 역사 사상이 깔려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同文集考」
- 「東莞縣志」
- 「明紀輯略」
- 「承政院日記」
- 「治谷集」
- 「兩朝從信錄」
- 「朝鮮王朝實錄」
- 「清高宗實錄」
- 「清世宗實錄」
- 「皇明十六朝廣彙紀」
- 「皇明通紀」
- 「皇明通紀輯要」
- 「皇明通紀集要」

- 강명관. 『조선시대 책과 지식의 역사』. 서울: 천년의상상, 2014.
- 천혜봉. 『한국 금속활자 인쇄사』. 서울: 범우사, 2012.
- 大木康 著, 노경희 역. 『명말 강남의 출판문화』. 서울: 소명출판, 2007.
- 井上進 著, 이동철·장원철·이정희 역. 『중국 출판문화사』. 서울: 민음사, 2013.
- 張秀民 著, 韓琦 증보, 강영매 역. 『중국인쇄사(二)』. 서울: 세창출판사, 2016.
- 錢茂偉. 『点校『皇明通紀』』. 香港: 中華書局. 2006.
- 강명관. “조선후기 서적의 수입·유통과 장서가의 출현.” 『민족문화사연구』 9(1996). 171-194.
- 김대경. “조선후기 『황명통기집요』의 편찬과 유통.”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9.
- 부유섭. “건륭 연간 연행록을 통해 본 중국도서 유입에 대하여.” 『대동한문학』 34(2009). 157-190.
- 부유섭. “燕行錄을 통해본 康雍 年間 中國書籍 流入에 대하여.” 『한문학보』 22(2010). 269-306.
- 부유섭. “壯洞 金門의 서적 유통과 지식 재생산.” 『민족문화』 41(2013). 131-165.
- 신익철. “연행록을 통해본 18세기 전반 한중 서적교류의 양상.” 『태동고전연구』 25(2009). 1-38.
- 안소라. “英祖代 史冊辨誣에 관한 研究: 『明史』의 朝鮮記事를 中心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8.
- 옥영정. “조선 使臣의 중국서적 수집활동과 그 현존자료에 대한 시론적 고찰.” 『서지학연구』 61(2015). 5-29.
- 유탉일. “古小説의 流通 構造.” 『동아어문논집』 1(동아어문학회, 1991). 5-17.
- 이민희. “조선과 중국의 서적중개상과 서적 유통문화 연구.” 『동박학지』 141(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8). 323-363.
- 이성규. “明·淸史書의 朝鮮 ‘曲筆’과 朝鮮의 ‘辨誣.’” 『李公範教授停年紀念東洋史論叢』 (1993). 503-568.
- 장민영. “조선 영조대 『명기집략』 사건의 정치적 성격.”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2011.
- 정길수. “李羲天論.” 『규장각』 27(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4). 95-116.
- 정병설. “조선시대 대중국 역사변무의 의미.” 『역사비평』 116호(2016). 250-276.
- 한명기. “17·8세기 韓中關係와 仁祖反正.” 『한국사학보』 13(2002). 9-41.
- 허태용. “영(英)·정조대(正祖代) 중화계승의식(中華繼承意識)의 강화와 송(宋)·명(明) 역사서의 편찬.” 『조선시대사학보』 42(2007. 9). 237-269.
- 新宮學. “陳建『皇明資治通紀』의 禁書とその續編出版(一).” 『山形大學歴史・地理・人類學論集』 6(2005). 65-77.
- 新宮學. “陳建『皇明資治通紀』의 禁書とその續編出版(二).” 『山形大學歴史・地理・人類學論集』 7(2006). 111-138.

- 莊興亮. “明代史家陳建的學述生平及其『皇明通紀』研究述評.” 『史學史研究』 2013 No.4(2013). 27-38.
- 錢茂偉. “『通紀』歷史敘事的特点與成就.”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 2007 No.5(2007). 129-134.
- 錢茂偉. “陳建『通紀』書名與版本考.” 『古籍整理研究學刊』 2008 No.3(2008). 44-49.
- 錢茂偉. “明末清初明史編纂特点三論.” 『史學月刊』 2009 No.4(2009). 112-119.
- 孫衛國. “『明紀輯略』之東傳及其引發之事件—中韓書籍交流史研究之一例.” 『書目季刊』 1998年第2期(1998). 60-65.
- 孫衛國. “『皇明通紀』及其續補諸書對朝鮮之影響.” 『中國史研究』 2009 No.2(2009). 27-38.
- 楊緒敏. “『大明會典』、『明史』與朝鮮辨誣.” 『南開學報』 2010 No.2(2010). 79-139.
- 楊艷秋. “『皇明通紀』續補諸作考述.” 『古籍整理研究學刊』 2014 No.1(2014). 31-35.
- 楊艷秋. “『皇明通紀輯要』與朝鮮王朝的經筵進講.” 『南開學報』 2016 No.5(2016). 90-102.
- 向燕南. “陳建『皇明資治通紀』的與編纂特點及影響.” 『史學史研究』 1993 No.1(1993). 48-56.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 [접속일 2020.8.19.]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 [접속일 2020.8.19.]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청실록』 <<http://sillok.history.go.kr/mc>> [접속일 2020.8.19.]
-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접속일 2020.8.19.]
-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접속일 2020.8.19.]
- 『全國漢籍データベース』 <<http://kanji.zinbun.kyoto-u.ac.jp>> [접속일 2020.8.19.]
- 『高校古文獻資源庫讀者檢索系統』 <<http://rbsc.calis.edu.cn:8086>> [접속일 2020.8.19.]
- 『중국학술정보원 CNKI』 <<http://gb.oversea.cnki.net/Kns55>> [접속일 2020.8.19.]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hn, So-ra. 2018. *Study on the Historical Corrections in King Yeongjo (英祖) Period: Centering on the Joseon (朝鮮) Articles of Mingshi (明史)*. Docto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 Aramiya, manabu. 2005. “An Unofficial History of Ming Dynasty (Huang-ming zi- zhi tong-ji) written by Chen-jian and its Sequels.” *Journal of History (1), Geography and Cultural Anthropology*, 6: 65-77.
- Aramiya, manabu. 2006. “An Unofficial History of Ming Dynasty (Huang-ming zi- zhi tong-ji)

- written by Chen-jian and its Sequels.” *Journal of History (2), Geography and Cultural Anthropology*, 7: 111-138.
- Bu, Yu-seop. 2009. “On the inflow of Chinese books, examined through the Yunhangrok of Chien Lung period.” *Daedonghanmunhak*, 34: 157-190.
- Bu, Yu-seop. 2010. “On the Inflow of Chinese Books into Chosun during the Kangxi-Yongzheng Era Seen in Yeonhaengrok.” *Han Mun Hak Bo*, 22: 269-306.
- Bu, Yu-seop. 2013. “Book Circulation and Knowledge Reproduction of Jang-dong Kim Mun-Centered on books of Ming and Qing dynasties.” *The Journal of Korean Classics*, 41: 131-165.
- China Academic Library & Information System. <<http://rbsc.calis.edu.cn:8086>> [cited 2020.8.19.]
-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http://gb.oversea.cnki.net/Kns55>> [cited 2020.8.19.]
- Chon, Hye-bong. 2012. *The History of Korean Metal Type Printing*. Seoul: Bumwoosa.
- Chung, Kil-soo. 2004. “Lee, Hee-cheon.” *Kyujianggak*, 27: 95-116.
-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Center for Chinese Studies.  
<<http://kanji.zinbun.kyoto-u.ac.jp>> [cited 2020.8.19.]
- Han, Myung-gi. 2002. “Injo Banjeong and Korea-China relations in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y.” *The Journal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13: 9-41.
- Huh, Tae-yong. 2007. “The Consolidation of Notion on Confucian-Cultural Succession and Compilation of historiographies on Chinese Song and Ming Dynasty in King Yeongjo and Jeongjo’s reign period.” *The Chopson Dynasty History Association*, 42: 237-269.
- Inoue, Susumu. 2013. *Chinese Publishing and Culture History* (Lee, Dong-Cheol et al. Trans). Seoul: Minumsa (Original work published 2002).
-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http://db.itkc.or.kr/>> [cited 2020.8.19.]
- Jang, Min-yeong. 2011. *The Political characters of the ‘Myeonggijipryak Incident’*.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ogang University.
- Jung, Byung-sul. 2016. “Meaning of Pro-Chinese History Corrections in the Joseon Dynasty.” *Critical Review of History*, 116: 250-276.
- Kang, Myeong-kwan. 1996. “The Importation and Distribution of Books in the Late Joseon Period and the Appearance of Booksellers.” *Journal of Korean Literary History*, 9: 171-194.
- Kang, Myeong-kwan. 2014. *A History of Book and Knowledge in Joseon Dynasty*. Seoul: Cheon’nyeon’eui Sangsang.
- Kim, Dae-gyeong. 2019.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Hwangmyeongtonggijibyoo (皇明通*

- 紀輯要』 in the Late Joseon.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Korean Old and Rare Collection Information System.  
<<https://www.nl.go.kr/korcis/>> [cited 2020.8.19.]
- Lee, Min-heui. 2008. "A Study on Book-Brokers and the Culture of Book Distribution in the 16th-19th Century in Korea and China." *The Dongbanghakchi*, 141: 323-363.
- Lee, Sung-kyu. 1993. "Errors and request to revise errors Chosun of History in the Ming and Qing Dynasty." *Professor Lee, Gong-beom's New Year Remembrance of the Dongyang History Series*, 503-568.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the Joseon Dynasty. <<http://sjw.history.go.kr>> [cited 2020.8.19.]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http://sillok.history.go.kr/main>> [cited 2020.8.19.]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Veritable Records of the Qing. <<http://sillok.history.go.kr/mc>> [cited 2020.8.19.]
- Ok, Young-jung. 2015. "An Exploratory Study on Book Collection of Joseon Missions to Imperial China and its Existing Old Books."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61: 5-29.
- Oki, yasushi. 2007. *Publishing Culture in late Ming Jiangnan* (Rho, Kyung-Hee, Trans). Seoul: Somyong Publishing Co. (Original work published 2005).
- Qian, Mao-wei. 2006. *Cultivation Huangmingtongji*. Hongkong: Chunghwabook Co.
- Qian, Mao-wei. 2007. "The Characteristics and Achievements of Historical Narratives of Tong-Ji of Chen-jian." *JOURNAL OF GRADUATE SCHOOL OF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5: 129-134.
- Qian, Mao-wei. 2008. "A Study on the Title and Version of the Book of ong-Ji of Chen-jian." *Journal of Ancient Books Collation and Studies*, 3: 44-49.
- Qian, Mao-wei. 2009. "On Three Characteristics of the Compilation of the Ming History in the Late Ming and Early Qing Bynasties." *Journal of Historical Science*, 4: 112-119.
- Shin, Ik-cheol. 2009. "Book Exchanges between Koreans and Chinese in the Early 18<sup>th</sup> Century: Focusing on the Records of Traveling to Beijing by Joseon Intellectuals." *Tae-Dong Yearly Review of Classics*, 25: 1-38.
- Sun, Wei-guo. 1998. "The Incident that it triggered by Propagation to East of Myeonggijipryak." *Bibliography Quarterly*, 2: 60-65.
- Sun, Wei-guo. 2009. "Huangmingtongji and the Impact of the Subsequent Books on Chosun."

*Journal of Chinese Historical Studies*, 2: 27-38.

- Xiang, yan-nan. 1993. "Compile Characteristics and effects of Huangmingzizhitongji of Chen Jian." *Journal of Historiography*, 1: 48-56.
- Yang, Xu-min. 2014. "Supplementary textual criticism of Huangmingtongji." *Journal of Ancient Books Collation and Studies*, 1: 31-35.
- Yang, Yan-qiu. 2010. "Daminghuidian and Ming history and Request to revise errors of Chosun." *Nankai Journal*, 2: 79-139.
- Yang, Yan-qiu. 2016. "Huangmingtongjijiyao and Jingyan of Chosun Dynasty." *Nankai Journal*, 5: 90-102.
- Yu, Tak-il. 1991. "Distribution structure of Old novel." *Journal of Dong-ak Language and Literature*, 1: 5-17.
- Zhang, Xiu-min. 2016. *History of printing in China* (Gang, Yeong-mae, Trans). Seoul: Sechang Publisher Co.
- Zhuang, Xing-liang. 2013. "Comment of The Life of Chen Jian, a Historian of the Ming Dynasty and Huangmingtongji." *Journal of Historiography*, 4: 27-38.

